

# ESG Wannabe

SK증권 스마트시티추진실  
자동차/철강 권순우. 3773-8882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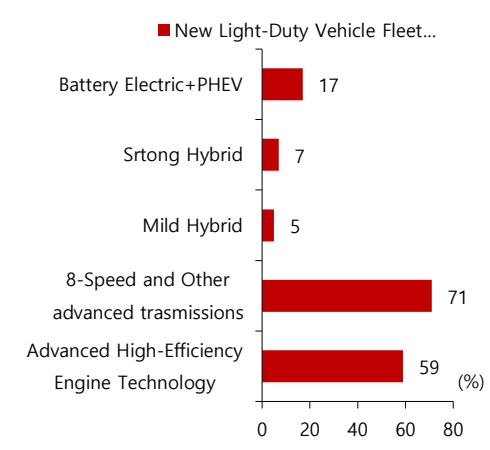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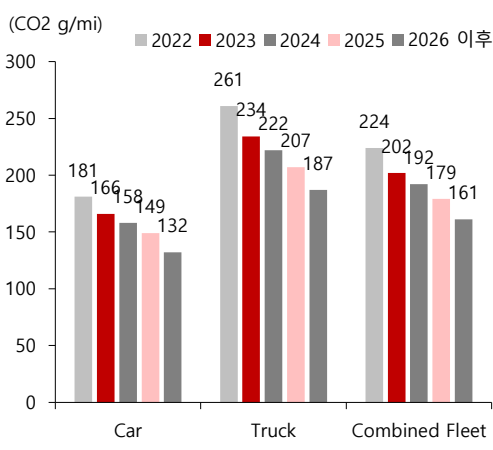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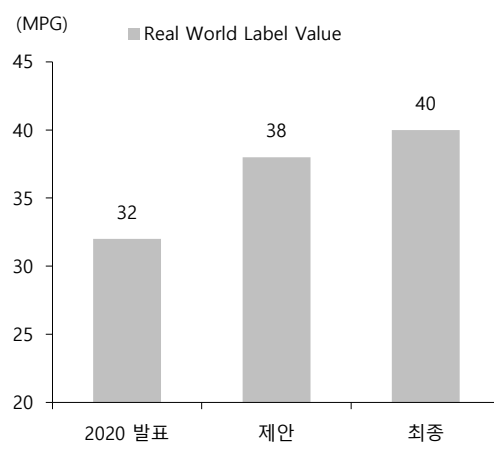


## 새해에도 중요할 연비규제

### ● 미국, 연비규제 강화

- 미국 바이든 정부는 신차의 연비규제 강화. 2026년형 모델 기준으로 평균 40 mpg(Miles per Gallon) 달성하는 것이 목표로 트럼프 정부에서 제정한 기준(32 mpg) 뿐만 아니라 8월 발표된 제안(38 mpg)보다도 강화
- 규제 강화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함, 실제로 승용차(Car)와 트럭(Light Truck)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미국 배출량의 17%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
- 마일(mile) 당 이산화탄소(CO2) 발생량은 2022년 승용은 181 g/mile, 트럭은 261 g/mile 로 추정되나, 2026년에는 승용 132 g/mile, 트럭 187 g/mile를 달성해야 함. 매년 5~10% 수준의 감소가 필요
-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요, 2026년 신차판매에서는 높은 수준의 엔진(59%) 및 변속기(71%) 기술의 비중이 상승
- 동시에 전동화 차량의 비중도 높아질 전망. EV+PHV는 17%, HEV 7%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4대 중 1대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
- 주요 지역의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자동차 업체의 변화도 빨라질 필요.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여전히 전동화와 이로 인한 변화는 중요하다는 판단

기존 제안보다 강화된 미국 연비규제	매년 5~10% 배출가스 감소가 요구	신차 판매에서 전동화 차량 비중확대 전망
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----



자료: EPA, SK증권 주: MY2026 기준

자료: EPA, SK증권

자료: EPA, SK증권 주: 2026년 예상 판매 기준



## Compliance Notice

---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당사는 본 보고서의 발간시점에 해당종목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종목별 투자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투자판단 3단계(6개월 기준) 15%이상→매수 / 15%~15%→중립 / -15%미만→매도